

# 장 백 산 천 지

제 302 호

2017 년 6 월 12 일

월요일

##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생체 장기적출’ 상영, 민중들 중공의 폭행 규탄

[밍후이왕] 2017 년 5 월 23 일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생체 장기적출당한 기록 영화 ‘인간 수확(Human Harvesting, 중문명 생체 장기적출 [活摘])을 상영했다. 법관, 학생과 각계민중을 포함한 몇 십 명 관중들은 중국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 폭행에 크게 놀라면서 응당 제지해야 한다고 분분히 표시했다.

제 74 회 피바디 상(Peabody Award)을 수상한 기록 영화 ‘생체 장기적출 [活摘]’ (Human Harvest)은 노벨 평화상 후보자 데이비드 마타스와 데이비드 킬고어가 중국에서 발생한 생체 장기적출 및 매매에 대해 진행한 대량의 상세한 조사와 증인의 증거제시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십여 년 동안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생과 양심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해 팔아 폭리를 취한 진상을 폭로했다. 상영이 끝난 후 데이비드 마타스와 ‘강제 장기적출반대 의사조직 (DAFOH)’의 대표 아리항주(阿里杭珠)의사는 현장에서 관중들이 제기한 문제를 대답했다. 아리항주의사는 “2006 년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들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만행이 처음 폭로된 이래 점점 많은 증거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



과 양심수를 겨냥해 한 생체 장기적출의 최악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표시했다.

“도살당한 이들은 산사람으로서 무고한 양심수들이다. 장기이식이 수요 되는 사람이 돈을 내려고 하면 그들은 수요에 따라 살해당한다.” “이런 범죄행위는 죽는 사람을 살린다는 간판을 내걸기에 더욱 사악하게 변했다”고 아리항주는 말했다.

퇴직판사, “중국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 만행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고법원 퇴직판사 Quentin Kopp 는 관람 후 “이는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 만행은 나로 하여금 제 2 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한 대도살을 생각나게 합니다. 중국공산당의 행위는 유엔의 원칙을 위반했는데도 유엔에서 중공의 폭행에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놀라게 됩니다. 유엔은 응당 중국공산당이 폭행을 멈추도록 압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파룬궁은 평화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파룬궁 수련생을 살해합니까? 이는 중공의 독재 성격이 결정한 것입니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응당 중단돼야 합니다.” ◇

## 사진뉴스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의 날 행진, 화인들 파룬궁에 찬사를 보낸다



■ 정이 넘치는 요고대의 중국 전통문화의 숨결은 현장관중에게 기쁨과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 정교한 연꽃 차는 관중들의 깊은 찬사를 받았다. 사람들은 분분히 사진을 찍어 기념으로 남겼다

[밍후이왕] 2016년 11월 24일, 장시 평청 발전소 냉각탑에서 특별중대사고가 발생했다. 냉각탑 꼭대기의 콘크리트가 응고되지 않아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탑 꼭대기에서 시공하던 74명의 노동자들이 전부 재난을 당했다. 이 사건은 국내 외를 놀라게 하였지만 대륙 언론은 사실보도를 하지 않았다. 나는 현장 목격자이자 생존자이다. 큰 재난 속에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공포가 남아 있다.

나는 장시 평청 발전소 냉각탑 시공현장에서 일을 했다. 당시 냉각탑은 거의 80미터 높이까지 쌓였다. 2016년 11월 24일, 그날 아침밥을 먹고 대략 7시 반쯤에 같은 일을 하는 한 팀의 두 노동자와 함께 공지현장에 갔다. 가는 도중 나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바로 창고에 나사못을 가지러 갔고 그 두 노동자는 먼저 공지현장에 갔다. 당시 교대시간이 아니어서 탑 위의 노동자들은 이미 한 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창고에서 나온 후, 나와 한 팀인 그 두 노동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엘리베이터와 기중기의 위치는 냉각탑 안에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가 탑 위에서 2~3분쯤 내려오고 있을 때, 갑자기 냉각탑 위의 첫 번째 시멘트 거푸집이 떨어졌다. 누군가 조심하지 않아 부딪쳐 넘어진 줄 알고 고개를 들어 쳐다보고 있을 때, 순식간에 냉각탑 위의 노동자와 시멘트 거푸집, 시멘트, 철근, 삼각대가 한 바퀴 빙 돌면서 물탑 안으로 떨어졌다.(냉각탑 형태는 바닥이 넓고 위가 좁다) 나는 급히 탑 밖으로 달렸다. 대여섯 걸음 뛰자 탑 위에 있던 물건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느껴져 나는 급히 두 걸음 물러나 땅에 엎드리고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가 1분여 만에 내 옆에 다 떨어진 것 같았는데 안전통로마저 다 붕괴되었다.

나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몸에 먼지만 조금 떨어졌다. 나는 일어서서 생존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려고 탑을 둘러싸고 한 바퀴 빙 돌아보았는데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급히 현장에 가서 사람을 파냈다. 연속 파낸 4구의 시신에서 네 번째 시신은 시멘트 속에 빠진 나의 아들이었다. 이번 사고는 우리 촌에서만 10명의 청장년이 불행하게 재난을 당했다. 파낸 시신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사고의 원인은 냉각탑 위의 가장 높은 한층, 약 4미터 콘크리트 건축물이 응고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냉각탑 위에서부터 붕괴되었던 것이다. 위에 있는 74명의 시공 노동자들은 구원의 소리마저 미처 질러보지 못한 채, 전부 추락했다. 철근 등 재료 밑에 깔려 1분여 만에 탑 밑에 매장되었다. 뒤이어 가족들이 와서 사후 처리를 한 후, 처형은 나에게 그녀가 이미 나를 도와 '3 퇴'를 하였고,



## 장시(江西) 평청(丰城)발전소 특별 대형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회억

내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믿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재난 뒤에 요행으로 살아남아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하였고, 대법의 위력이 초상함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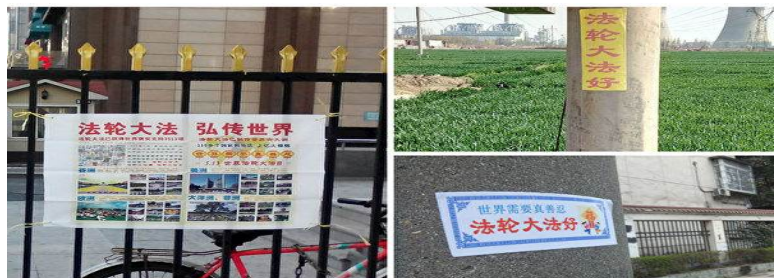
처형은 대법제자이다. 2년 전 그녀는 나에게 파룬궁이 무고하게 박해 받는 진상을 말해주고, '3 퇴(당, 단, 대 탈퇴)'를 권하면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真善忍好)'를 성심껏 외우면 대검난이 올 때 피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당시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녀가 나를 도와 전에 가입했던 중공의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해 줄 것에 동의했다.

작년에 처형은 나의 아들에게도 파룬궁 진상을 말해주고,

'3 퇴'를 권하면서 장기간 외지에서 시공할 때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성심껏 외우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아들은 중공의 무신론 독해를 받아 믿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결과 대재난 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큰 재앙을 겪으면서 인생은 무상하고 재앙은 순식간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나는 파룬궁 수련생이 말한 것이 모두 진실인 것을 직접 체험하고 실증했다. 절대로 중공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하고, 빨리 중공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하여 재난이 올 때 정말로 신의 보호가 있기를 바란다. ◇ (글/데밍)

## 대륙 각 지역의 파룬궁 전시판



[밍후이왕]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다. 근일, 대륙 허베이, 산둥, 라오닝, 헤이룽장, 윈난, 후베이, 후난, 스촨, 지린, 산시등지에 여러쪽의 파룬궁진상 전시판과 현수막이 나타났다. 이런 전시판과 현수막내용은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좋다' '진선인(真善忍)은 좋다' '세계는 진선인(真善忍)이 수요된다.'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구에 널리 전해졌다' '전세계는 장쩌민을 고소한다' 등 이다.



## 변호사가 법정에서 창춘(長春)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

[밍후이왕] 2017년 5월 27일, 창춘시(長春市) 파룬궁 수련생 왕차이사(王彩霞), 류둥양(劉東洋) 모녀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마웨이(馬衛)와 저우원창(周運昌) 두 변호사가 그녀들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변호를 하자 검사와 청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것은 지린성에서 처음으로 변호사가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한 것이다.

왕차이사, 류둥양 모녀는 2016년 7월 21일 지린성 농안현(農安縣) 610(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불법 조직으로,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 위에 군림함), 공안국 형사경찰대, 국가보안, 경찰의 연합작전으로 납치당해 창춘시 제4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난관구 법원에서는 개정 통지를 내려 변호사에게 법정에서 나와 변호를 하도록 요청했다.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아침 7



시에 개정했다. 개정 과정은 매우 조용했는데, 단지 청장, 검사, 2명의 변호사만 있었다. 당시 왕차이사의 아들 한 명만 방청을 허락했다. 그리고 '610'과 경찰 등 인원은 전부 밖에서 왕차이사, 류둥양 모녀를 지지하러 이곳에 온 파룬궁 수련생을 깨문고 조사하며 교란했다.

마웨이와 저우원창 두 변호사가 왕차이사, 류둥양을 위해 훌륭한 무죄 변호를 했다. 전체 과정에서 내용의 3분의 2가 변호사의 변호였다.

처음에 변론을 시작했을 때, 검사의 여러 가지 고발은 변호사에게

반론 당했다.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사의 변호에 검사와 청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때문에 첫 번째 변론이 끝난 후, 청장은 제 2차 변론은 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파룬궁 수련생 왕차이사과 류둥양도 파룬궁 수련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전체 과정에서 변호사가 주도했다.

당시 방청한 사람은 또 마웨이 변호사를 감시하러 텐진에서 이곳으로 온 2명의 사법 인원이었다. 마웨이 변호사는 그들에게 “당신들도 오늘 이곳으로 와서 수업을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장래 파룬궁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때, 당신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당신들이 파룬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보세요.”라고 말했다.

법정 심문은 2시간 가까이 지속됐는데, 그날 법정 심문 결과는 선포하지 않았다. ◇



## 사고와 판단

◆ 파룬궁 서적에는 살생과 자살은 모두 죄가 있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진정한 수련인은 절대 살생 혹은 자살, 분신자살을 하지 않는다. 모든 파룬궁 서적과 비디오자료는 모두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해외에도 파룬궁에 대한 정면의 보도가 많다. 하지만 중공은 박해를 시작해서부터 파룬궁 서적을 대량적으로 소각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체 파룬궁에 관한 정면 정보를 봉쇄했고, 파룬궁과 연결된 언어를 민감한 단어로 설치했다. 이는 사람들이 사실 진상을 요해하는 것을 두려워 서이다.

◆ 2001년 8월 14일 연

합국회의에서 국제 교육 발전조직은 '천안문 분신 자살' 사건에 관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공포주의행위'를 강렬히 규탄했다. 성명에서 “영상분석 결과는 사건 일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조작극’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철 같은 사실 앞에서 회의에 참가한 중공대표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 중공이 보도한 일부 자살, 살인의 괴상한 일은 박해 전에는 종래로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박해 후 이런 나쁜 일이 갑자기 매체에 끊없이 나타나는가? 무엇 때문에 국외에서 파룬궁이 고도로 자유로운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괴상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 엔 벤 박해소식

## ◎연변 연길시 주희옥은 길림성 여자감옥에 압송됐다

[밍후이왕] 연길시 주희옥은 파룬궁수련을 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4년 형을 받고 5월 9일에 또다시 연길구치소에 납치된 후 11일에 장춘에 있는 지린성 여자감옥에 압송됐다

## ◎길림성 화룡시 오영문(吳英文)은 불법적인 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갇혔다.

[밍후이왕] 올해 74세인 길림성 화룡시 팔가자 파룬궁수련생 오영문은 2017년 5월 9일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1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길림감옥에 감금됐다. 신체는 좋지 않아 혈압이 220이고, 어지러우며, 심장병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감옥 측은 가족을 면회시키지 않는데 아주 걱정된다.

2016년 7월 2일, 오영문은 화룡시에서 진상을 알릴 때 고발당해 화룡공안국에 납치됐다. 경찰 4명이 집에 뛰어들어 살살이 뒤지며 수색을 했으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자 슬그머니 떠나갔다.

후에 경찰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는데 오영문을 모욕하고 때리고 욕했으며, 겉옷과 신을 신지 못하게 하고 맨발로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게 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70 여세노인을 호되게 때려 정신을 못 차리게 했으며, 혈압이 220으로 올라갔다. 그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부터 오영문은 경상적으로 화룡 공검법(公檢法)의 소란 박해를 받았는데 1년 넘게 안정할 새가 없었다. 늘 직접 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협박했다. 후에 병 보석으로 풀려났다.

[밍후이왕] 설 명절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후 아파트 단지 부근에 새로 채소와 과일 파는 노점이 열렸다. 나는 곧 노점 노인이 아주 싫어졌다. 목소리가 유별나게 높아 호객할 때 그야말로 목이 쉬고 힘이 다 빠질 지경으로 외쳐댔다. 더욱 사람을 혐오스럽게 한 것은 자기가 파는 채소를 너무 과장하는 것인데 설령 오



이 한 개를 파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과장했다.

그가 나에게 준 인상은 농민의 소박함이란 없고 온 목소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았다. 이 노인이 싫었던 탓으로 그의 채소가 확실히 싱싱했지만 그래도 사지 않고 먼 길을 돌아 마트에 가서 샀다.

주말에 9급 태풍이 불었는데 집에 먹을 채소가 없어 별 수 없이 사러 나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바람은 아파트 안에서 들던 것보다 더 심했고 황사가 얼굴에 부딪혀 아팠다. 그래서 생각했다. ‘노점 노인이 있으면 그의 것을 사야겠군.’ 잇따라 자신을 부정했다. ‘이렇게 큰 바람이 부니 아마 그는 가게를 열지 않을 거야. 마트에 가자.’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어슴푸레 날리는 황사 속을 꿰뚫고 바라보니 뜻밖에 그 노인이 노점을 열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원래 노인은 허리를 구부리고 채소 과일을 담는 큰 광주리 뒤에 섰는데 손에는 흰 솜이불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채소를 다 팔고 노점을 닫으려는 걸까?’ 아이고! 아무래도 큰 바람을 맞으면서 마트로 갈 수 밖에 없구나. 나는 좀 풀이 죽어 그냥 앞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노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꽃과 가시가 달려 있는 싱싱한 오이요!” 귀에 익은 목소리는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품을 과대평가하는 말투였다. 하지만 오늘 듣기에는 그다지 짜증나지 않았다 노점 앞에 다가가 처음으로 그의 상품을 눈 여겨 보았다. 그의 채소나 과일은 확실히 매우 싱싱

했고, 게다가 잎사귀 채소는 마트에 서처럼 분량을 늘리려고 물에 씻은 것이 아니었다. 보아하니 ‘듣기에’ 그다지 소박해 보이지 않는 노인은 그래도 비교적 실재적이었다.

필요한 채소를 샀더니 노인은 그 기회에 나에게 과일도 팔려 했다. 노점의 사과, 바나나 같은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바로 물었다. “뒤에 이불을 덮은 건 뭔데요? 수박 인가요?”(나는 다른 사람이 수박, 딸기 같은 남방에서 온 역계절 과일을 솜이불을 덮어 보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노인이 허허 웃었다. “수박이라고요? 이건 수박보다 더 진귀하답니다.” 나는 호기심이 부쩍 일었다. “그럼 뭔가요?” “제 마누라죠.” 채소 파는 노인이 말하면서 이불을 젖히자 내가 수박인 줄로 알았던 사람 머리가 노출됐다. 자주 빛 두터운 털모자 아래로 누렇게 부은 얼굴이 나타났다. 노인은 이불을 덮고 잘 여며 주었다.

나는 이미 거스름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사람은 병이 몹시 심한 모습이었다.

내가 막 말을 꺼내려 하는데 노인은 앞질러 말했다. “집에 두고 오자니 그녀가 언제 갈지 알 수 없어 데리고 나왔죠. 그녀가 솜이 벗는 걸 볼 수……” 노인의 그 영리한 혀가 갑자기 떠듬거렸다.

“치료할 방법이 없나요?” “말기랍니다. 채소나 많이 팔아 그녀에게 진통 주사나 맞춰주면 정성을 다 한 셈이지요. 이 병은 우리 가난한 백성이 앓을 병일까요? 집을 팔아 화학약품 치료를 했지만 다 빠진 머리카락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또 암이 전이됐

어요.” 노인은 나에게 줄 거스름돈을 찾는 한 편 한쪽으로 말했는데 목소리는 호객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손을 흔들면서 도망쳤다. 나는 내가 평소에 누적했던 많은 것들이 대번에 무너지는 감을 느꼈다. 나는 그렇듯 자신만 옳다고 여겼고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일체 부딪친 사람과

일을 판단했다. 자신은 좋은 교육을 받아 지능이 높고 감성 지수가 높으며 견식이 넓어 ‘세상일에 휘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나는 채소 파는 노인을 보아낼 줄 몰랐고, 나는 그의 표면만 보았으며, 자신의 관념으로 색안경을 걸치고 사람을 보면서도 또 스스로 자신은 얼마나 고명하다고 여겼으니 나는 얼마나 편협한가!

표면만 보고 위치를 바꿔 놓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진정하고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상층 계층 사람이 세상일을 판단하는 폐단과 얼마나 흡사한가! 한 친구가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늘 만나는 수련자가 그에게 ‘천멸중공(天滅中共: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소멸함)’을 말하면서 그가 어서 ‘3퇴’해 평안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수련자들에 대해 “뭘 바라는 거지? 돈을 주는 사람도 없고 잡히면 또 갇혀야 하는데 너무 어리석어”라고 말했다. 일찍이 나도 친구가 하는 말이 이치가 없는 건 아니라고 여겼다. 하지만 채소 파는 노인의 일이 나를 반성하게 했다. 냉정하게 파룬궁을 이해해야 할 게 아닌가?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것 역시 고집스러운 게 아닐까? 우리는 한 사람, 한 가지 일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 단지 자신의 이른바 경험이나 독단적인 선전에만 의거해 결론을 내리고 다방면의 정보에 따라 이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데 이는 정보가 폭발하는 시대에 우물에 앉아 하늘을 보는 격이 아닌가?

더 많이 생각하면 예지가 더 많아질 것이다. ◇(글/ 바이렌)